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with Infants

배아란¹

Ah Ran Bae¹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with infants and to confirm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behavior.

Methods: This study used data collected through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from 2008 to 2010 and the participants were 1,444 mothers with infants.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technical statistics, correlations and multivariate potential growth models using SPSS 28.0 and AMOS 26.0.

Results: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stress of mothers gradually increased, and positive parenting behavior gradually decreased. Having a lot of parenting knowledge reduced mother's parenting stress. Mother's parenting stress reduced positive parenting behavior, and as parenting stress increased, positive parenting behavior decreased significantly.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behavior was not significant.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 was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Conclusion/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to reduce parenting stress and promote positive parenting behavior along with the systematization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in order for mothers with infants to acquire parenting knowledge.

key words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longitudinal analysis

* 본 논문은 2021년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¹ 제1저자(교신저자)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박사과정생
작은술키큰나무어린이집 원장
(e-mail : child-bar@daum.net)

I. 서론

오래전부터 연구자들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에 대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어 연구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Ainsworth et al., 1978; Laakso et al., 1999). 어머니가 어린 자녀 양육에 있어 온정이나 애정과 같은 양육행동을 하게 되면 자녀의 긍정적 발달결과를 가져오고, 이와 반대로 거부 및 통제와 같은 양육행동을 하게 되면 자녀의 부정적 발달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김민정 등, 2013). 또한, 어머니가 영아를 돌보면서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상호작용은 영아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진경 등, 2016). 특히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보이는 민감하고 반응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은 전반적인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는 어머니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해 긍정적 양육 효과를 유발한다(민현숙, 문영경, 2013).

그렇지만,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올바른 양육 역할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더불어, 어머니들은 어머니로서의 욕구와 성인 여성으로서의 욕구가 때때로 서로 갈등하고 충돌되기 때문에 다양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서영민, 2011). 더욱이 현대사회의 부모는 급격한 핵가족화, 증가하는 맞벌이 가정, 지나친 영유아 조기교육 열풍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이 증가하고 부모 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져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김미정, 하지민, 2013). 특히, 어머니의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는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며,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양육환경을 필요로 한다(장선희, 2018).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양육스트레스는 심리적인 만족감이나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갖게 하지만, 과도한 양육스트레스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감을 경험하게 하고,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로 인해서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초래하게 된다(이슬기 등, 2007).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꼭 필요한 요인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로 양육지식이다(김정미 등, 2011). 영아기는 전체 생애 중 매우 짧은 기간 안에 가장 빠르게 발달하고 이 시기의 경험을 통해 신체, 인지, 사회, 정서적 발달에 기반이 되는 결정적 시기이므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확한 전반적인 양육지식은 영아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경하, 2009).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대부분에게 있어서 자녀의 영아기는 그들의 인생 주기에서 부모 됨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며(이주연, 2009), 어머니에게 있어 양육지식은 양육행동의 근원이 되므로, 양육지식이 많을수록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취할 수 있게 된다(이송은, 2012). 또,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린 자녀를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반응적인 어머니 역할에 대한 올바른 양육지식이 필요하다(김정미 등, 2013).

이와 같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함에 있어 양육지식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도 하고,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데 꼭 필요한 양육행동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과거 윗세대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레 터득할 수 있었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고 있다(서진영, 이주연, 2013). 급속한 발달과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만, 부모 역할수행에 필요한 양육 지식을 미처 습득하지 못하고 예전보다 준비가 덜 된 채 부모가 되는 가정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어머니 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아동학대, 이혼, 저출산 등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증가시키게 된다(배아란, 2021). 특히, 가족 구성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해 어머니 역할에 대한 모델 부족,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준비 부족과 경험 부족 등은 어머니로서 책임과 역할에 대한 불안을 가중하여,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도 한다(정윤주, 채진영, 2010).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김정미 등, 2011), 양육지식의 축적은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서진영, 이주연, 2013; 송연숙, 김영주, 2007; 양미선, 김양은, 2012; 이경하, 서소정, 2009; 이주연, 2009). 더불어, 양육지식이 많은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방향성을 터득하게 되므로,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며(도현심 등, 2009; 송영주 등, 2014), 양육지식이 적은 부모는 양육스트레스 중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게 된다(양미선, 김양은, 2012).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이정숙 등, 2016; 최효식 등, 2013)을 통해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연령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지만,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지식 변화는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영아가 성장하는 동안 양육지식을 많이 축적하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정숙 등(2016)은 초기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의 증가 경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최효식 등(2013)은 초기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와는 상관이 없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 하고 있어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출생순위 등의 여러 변인에 의해 다른 결과가 예측된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를 통해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적극적인 참여나 인정, 수용, 애정적,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안지영, 2001). 또, 어머니들은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에 대해 강압적이고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부정적 양육행동을 보여주었고, 양육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할수록 자녀에 대해 온정적, 수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여주었다(김민형 등, 2015; 장선희, 2018; 최효식, 연은모, 2014; 황성온, 황지은, 2015). 특히, 양미선, 김양은(2012)의 연구를 통해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 중 ‘자녀 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보다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황성온, 황지은, 2015)를 통해 자녀연령증가에 따라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양육 태도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가 양육 태도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긍정적 양육 태도가 적게 나타났지만, 양육 초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이후 양육 태도에 대한 변화과정에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양육지식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를 통해서는 어머니가 알고 있는 자녀발달에 대한 지식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Huang et al., 2005).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많을수록 양육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높으며 효과적인 양육수행이 가능하였

다(송영주 등, 2014). 특히, 영아기 어머니의 경우 양육지식 정확도와 양육행동의 참여도가 연관성이 있으며,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이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다(양미선, 김양은, 2012).

이처럼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있어 양육지식은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자녀 양육에 있어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영향 관계가 많은 선행 연구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민현숙, 문영경, 2013; 양미선, 김양은, 2012)에서 세 가지 변인이 영아 발달에 미치는 중요성에 관해 서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연령증가에 따른 종단적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동안 선행 연구들은 주로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양육지식과 양육행동의 관계, 그리고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한계점이 있다. 더불어, 종단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는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와 다른 부모 변인 간의 종단적 관계(이정숙 등, 2016; 최효식 등, 2013),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다른 자녀 관련 변인 간의 종단적 관계(남기원, 변유미, 2018; 배은희, 이소연, 2019), 그리고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인과적 종단 관계를 분석(황성온, 황지은, 2015)한 선행 연구만이 보고되고 있다.

도현심 등(2009)의 연구에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걸음마기 아동의 발달, 자녀 양육정보, 건강, 영양, 안전에 대한 지식과 부모 역할이해 등에 관한 각각의 양육지식에 대한 지식 수준과 지식에 대한 요구가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양육지식이 어머니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인 디스트레스와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아동의 기질 등으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아동발달 및 건강, 영양, 안전에 관한 지식 등이 낮았으며, 이를 보완한다면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과 양육으로 인한 고통으로 늘어나는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 자녀가 자라는 동안 자녀에게 온정과 애정으로 대하는 사회적인 양육행동이 점차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영아기뿐만 아니라 아동기, 청소년기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 역할수행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은 자녀 연령증가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연구문제 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자녀 연령증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 연령증가에 따라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관계에서

자녀 연령증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는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조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의 조사는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전국에서 표집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여 매해 실시하고 있으며, 성인기에 진입하는 시점인 2027년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차년도(2008)부터 3차년도(2010)까지 총 3개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1,444명으로, 어머니의 특성은 3차년도(2010년) 유효응답을 기준으로, 평균 연령이 32.76세($SD = 3.66$)이다. 어머니의 학력은 3차년도(2010) 유효응답을 기준으로 고졸 이하 400명(27.7%), 전문대졸 345명(23.8%), 대졸 이상 600명(41.6%)이었으며, 무응답이 99명(6.9%) 포함되었다. 어머니의 소득 활동 여부는 휴직을 포함한 취업 중이라는 응답이 1차년도 408명(28.3%), 2차년도 441명(30.5%), 3차년도 473명(32.8%)으로 소폭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아 740명(51.2%), 여아 704명(48.8%)이었으며, 자녀의 평균 연령은 1차년도 5.32개월($SD = .95$), 2차년도 14.08개월($SD = 1.04$), 3차년도 26.23개월($SD=1.36$)이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대상	기준(연도)	구분	<i>N</i> (%) or <i>M</i> (<i>SD</i>)	
	3차년도(2010년)	평균 연령(세)	32.76($SD=3.66$)	
	3차년도(2010년)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00(27.7)
			전문대학 졸업	345(23.8)
			대학교 이상	600(41.6)
			무응답	99(6.9)
어머니 특성	1차년도(2008년)	취업 중(휴직 포함)	408(28.3)	
		미취업	1036(71.7)	
		무응답	0(0)	
	2차년도(2009년)	취업 상태	취업 중(휴직 포함)	441(30.5)
			미취업	993(68.8)
			무응답	10(0.7)
	3차년도(2010년)		취업 중(휴직 포함)	473(32.8)
			미취업	967(67.0)
무응답			4(0.3)	

표 1. 계속

대상	기준(연도)	구분	<i>N</i> (%) or <i>M</i> (<i>SD</i>)
아동 특성	1차년도(2008년)	성별	
		남아	740(51.2)
	여아	704(48.8)	
	1차년도(2008년)	평균 연령(개월)	5.32(<i>SD</i> = .95)
	2차년도(2009년)	평균 연령(개월)	14.08(<i>SD</i> = 1.04)
	3차년도(2010년)	평균 연령(개월)	26.23(<i>SD</i> = 1.36)
전체			<i>N</i> = 1,444(100)

2. 측정도구

1) 양육지식

양육지식의 측정을 위해 KIDI(The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MacPhee, 2002)를 이용하였으며, 이는 표준화된 도구로 양육행동(parenting), 발달원리(principles), 건강과 안전(health and safety), 발달 기준 및 지표(norms and milestones) 등 총 4가지 하위영역이 있다.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는 이 중 발달원리 영역 문항이 사용되었다. 발달원리 영역의 문항은 ‘아이가 낯선 상황에서 수줍어하거나 칭얼댄다면 이는 대개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기의 성격 또는 기질은 생후 6개월이면 결정되고, 그 이후에는 잘 변하지 않는다’ 등의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육지식은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로 응답되며, 정답일 경우 1점을, 틀리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 0점으로 하여 합한 점수를 양육지식의 총점으로 사용하였다. 합한 점수가 높을수록 발달원리 영역의 양육지식이 높음을 의미하며, 어머니의 양육지식에 대한 신뢰도 값은 Cronbach’s α = .524(1차), .559(2차), .567(3차)로 나타났다.

2)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의 측정을 위해 PSI-SF(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Abidin, 1990)를 기초하여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도구가 사용되었다.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는 이 도구의 하위 요인 중 ‘부모 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를 발췌하였으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챌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등을 묻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이며, 합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신뢰도 값은 Cronbach’s α = .840(1차), .850(2차), .859(3차)로 나타났다.

3) 양육행동

양육행동의 측정을 위해 Bornstein et al. (1996)이 개발한 양육스타일(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 PSQ)는 ‘사회적 양육유형(social interaction)’, ‘한계설정 양육유형(limit-setting)’, ‘가르치는 양육유형(didactic/material stimul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는 PSQ의 3개 요인 중 신생아 부모에게 해당되는 ‘사회적 양육유형’만을 발췌하여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양육유형’은 실제로 행하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적인 교환의 정도를 의미한다. 1, 2차년도에는 어머니의 온정성과 반응성을 포함한 9개 문항 중 만 2세 이하 부모에게 적절하지 않은 3개 문항을 제외하였으며, ‘나는 우리 아이와 함께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나는 우리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 등을 묻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4차년도에는 3문항이 추가되어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1, 2, 3차년도 동일한 6개 문항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양육행동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이며, 합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적인 교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에 대한 신뢰도 값은 Cronbach’s $\alpha = .815$ (1차), $.831$ (2차), $.854$ (3차)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8.0과 AMOS 26.0을 활용하여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을 비교한 후 선형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발달궤적을 살펴보고, 영아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간의 발달궤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영아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종단 매개 효과에 대한 모형 검증 결과 적합도 지수는 카이스퀘어 값의 경우 합치 함수 값이 사례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대표본을 요구하는 구조방정식의 경우 쉽게 기각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는 *TLI*, *CFI*, *RMSEA* 같은 지표를 함께 활용하였다(홍세희, 1999).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영아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무변화 모형(unconditional model)과 선형변화 모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영아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간의 발달궤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영아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종단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팬텀 변수를 활용한 잠재성장모형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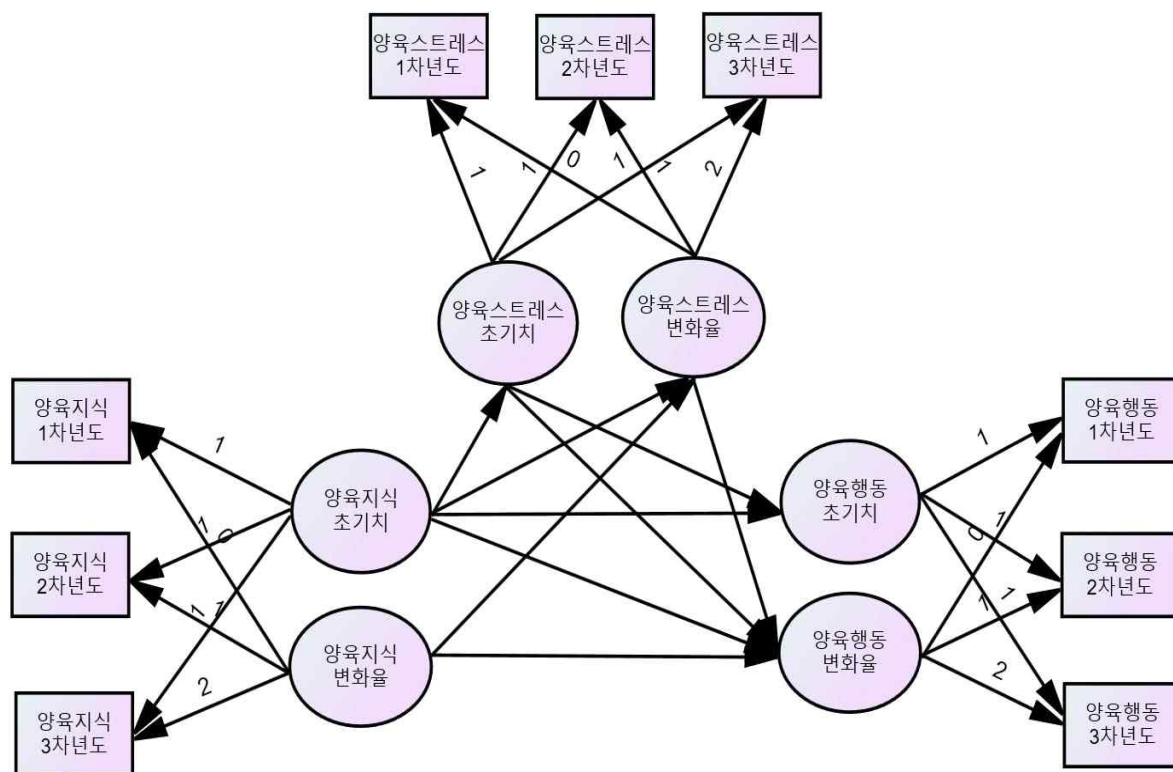


그림 1. 본 연구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연구모형

Ⅲ. 결과 및 해석

1.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기술통계

영아기 자녀의 연령증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발달궤적을 알아보기 위해 각 시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시점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영아기 자녀의 연령증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증가하였고, 사회적 양육행동은 감소하였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3차년도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모형의 검증 전 각 측정 변인들이 정규분포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의 통계값을 확인하였다. Hong과 Lee(2003)의 정규분포 기준은 $|왜도| < 2$, $|첨도| < 4$ 이므로, 모든 측정 변인들이 다변량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기술통계 (N = 1,444)

측정변인	전체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양육지식 1차년도	8.84	2.03	-.57	.33
양육지식 2차년도	9.12	2.10	-.88	.99
양육지식 3차년도	9.31	2.11	-.87	.99
양육스트레스 1차년도	27.51	6.22	.13	.10
양육스트레스 2차년도	27.42	6.40	.10	.16
양육스트레스 3차년도	28.08	6.38	.06	.32
양육행동 1차년도	24.21	3.00	-.49	1.05
양육행동 2차년도	23.38	2.94	-.12	.24
양육행동 3차년도	23.00	3.15	-.36	1.26

2.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상관관계

3년 동안, 영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각 변인 간 상관관계는 <표 3>과 같으며, 각 변인 간의 상관은 매년 유사한 정도의 상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아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은 양육지식과는 정적인 상관이, 양육스트레스와는 부적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영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상관관계

변수	양육지식 1차년도	양육지식 2차년도	양육지식 3차년도	양육 스트레스 1차년도	양육 스트레스 2차년도	양육 스트레스 3차년도	양육행동 1차년도	양육행동 2차년도	양육행동 3차년도
양육지식 1차년도	1								
양육지식 2차년도	.469***	1							
양육지식 3차년도	.457***	.510***	1						
양육스트레스 1차년도	-.071**	-.037	-.047	1					
양육스트레스 2차년도	-.132***	-.056*	-.094***	.642***	1				
양육스트레스 3차년도	-.147***	-.085**	-.054*	.560***	.645***	1			
양육행동 1차년도	.069**	.045	.072**	-.401***	-.336***	-.277***	1		
양육행동 2차년도	.108***	.081**	.095***	-.384***	-.483***	-.376***	.515***	1	
양육행동 3차년도	.098***	.093***	.079**	-.314***	-.377***	-.457***	.445***	.560***	1

* $p < .05$, ** $p < .01$, *** $p < .001$

3.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모형 적합도 분석결과

영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발달궤적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의 평균치를 바탕으로 변화함수를 추정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을 살펴보았다. 최적 모형을 찾기 위해 [그림 2]의 무변화 모형과 [그림 3]의 선형변화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양육지식과 양육행동의 경우 선형변화 모형의 적합도가 더 우수하였고,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가 비슷하였지만, 선형변화모형의 *RMSEA* 값이 더 나은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분석모형으로 선형변화 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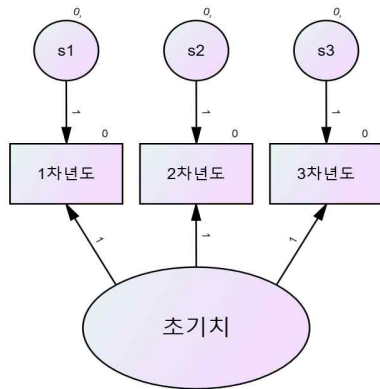


그림 2. 무변화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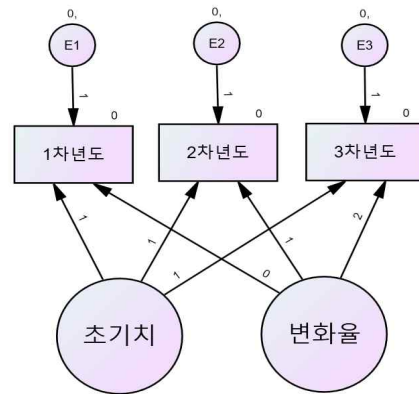


그림 3. 선형변화 모형

표 4.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TLI	CFI	RMSEA	평균		분산		공분산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양육 지식	무변화 모형	78.61*** (4)	.939	.918	.114	9.09***		2.05***		
	선형변화 모형	3.25 (3)	1.000	1.000	.008	8.86***	.24***	1.97***	.07	.02
양육 스트레스	무변화 모형	46.58*** (4)	.980	.974	.086	27.65***		24.89***		
	선형변화 모형	16.69** (3)	.992	.992	.056	27.39***	.29***	26.40***	2.00***	-1.54**
양육 행동	무변화 모형	226.83*** (4)	.842	.789	.196	23.50***		4.67***		
	선형변화 모형	13.48** (3)	.990	.990	.049	24.13***	-.60***	5.05***	.69***	-.43***

** $p < .01$, *** $p < .001$

영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발달궤적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지식 평균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8.86과 .2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1차년도 어머니의 양육지식 평균이 8.86이며, 자녀 연령증가에 따라 변화율 평균이 .24만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지식의 초기치와 변화율 간의 분산은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평균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27.39와 .2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1차년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평균이 27.39이며, 자녀 연령증가에 따라 변화율 평균이 .29만큼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초기치와 변화율 사이는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생후 초기인 1차년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적은 어머니보다 자녀 연령증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변화폭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1차년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자녀 연령증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변화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평균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24.13과 -.6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1차년도 어머니의 양육행동 평균이 24.13이며, 자녀 연령증가에 따라 변화율 평균이 -.60만큼 감소하여 이는 1차년도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은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생후 초기인 1차년도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많을수록 사회적 양육행동이 적은 어머니보다 자녀 연령증가에 따른 양육행동의 변화폭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사회적 양육행동이 적을수록 사회적 양육행동이 많은 어머니보다 자녀 연령증가에 따른 양육행동의 변화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검증 결과

최종분석 모형으로 설정된 선형변화 모형을 바탕으로 영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종단적 분석을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여 [그림 4]와 같이 최종모형이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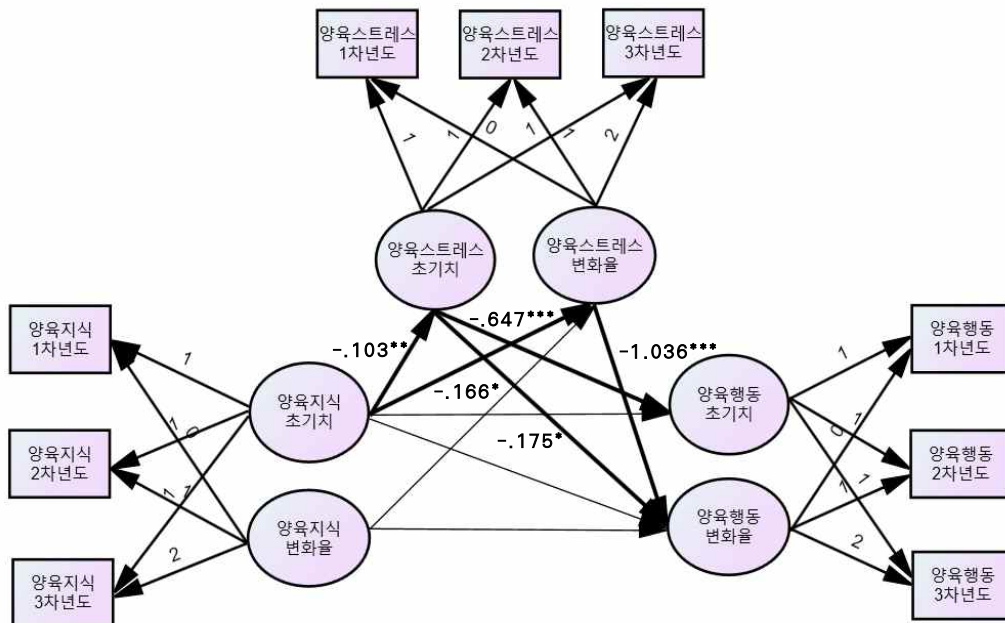


그림 4. 본 연구의 최종모형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에 의한 적합도 산출 결과는 <표 5>와 같이 *TLI*, *CFI* 지수는 모두 .90 이상으로 우수하였으며, *RMSEA*도 .05이하로 우수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표 5.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검증모형	χ^2	df	p	CFI	TLI	RMSEA
	83.540	18	.000	.969	.985	.050

<표 6>에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각 변인 간의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양육지식의 초기치는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beta = -.103, p < .01$)와 양육스트레스 변화율($\beta = -.166, p < .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지식이 많으면 양육스트레스가 적은 것을 의미하며, 양육지식이 많을수록 자녀 연령증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육지식의 변화율은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율에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양육지식의 초기치는 양육행동의 초기치에는 정적인 관계로, 양육행동의 변화율에는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양육지식의 변화율은 양육행동의 변화율에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는 양육행동의 초기치($\beta = -.647, p < .001$)와 양육행동의 변화율($\beta = -.175, p < .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율은 양육행동의 변화율($\beta = -1.036, p < .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사회적 양육행동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 연령증가에 따른 사회적 양육행동의 변화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녀 연령증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되면, 사회적 양육행동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많으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더불어, 양육지식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양육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사회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양육행동이 크게 줄어들어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표준화 계수(β)	비표준화 계수(b)	S.E.	C.R	p
양육지식 초기치→양육스트레스 초기치	-.103	-.384	.135	-2.844	**
양육지식 초기치→양육스트레스 변화율	-.166	-.222	.093	-2.381	*
양육지식 변화율→양육스트레스 변화율	.280	1.253	.853	1.468	.142
양육지식 초기치→양육행동 초기치	.067	.102	.058	1.752	.080
양육지식 초기치→양육행동 변화율	-.072	-.035	.048	-.737	.461
양육지식 변화율→양육행동 변화율	.227	.373	.321	1.163	.245
양육스트레스 초기치→양육행동 초기치	-.647	-.261	.015	-16.883	***
양육스트레스 초기치→양육행동 변화율	-.175	-.023	.011	-2.029	*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양육행동 변화율	-1.036	-.380	.063	-6.041	***

* $p < .05$, ** $p < .01$, *** $p < .001$.

5. 양육지식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종단매개효과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통계 분석을 활용하여,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종단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시행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로 나타난 모형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팬텀 변수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 방법(표본수 2,000회)으로 95%의 신뢰구간을 정하여 매개 효과를 추정하였으며, 0이 95% 신뢰구간에 포함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Shrout & Bolger, 2002).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모형의 간접효과 및 유의성 검증

경로	간접효과	95%	
		BC-Lower bound	BC-Upper bound
양육지식 초기치→양육스트레스 초기치→양육행동 초기치	.100**	.033	.173
양육지식 초기치→양육스트레스 초기치→양육행동 변화율	.009*	.001	.031
양육지식 초기치→양육스트레스 변화율→양육행동 변화율	.084*	.021	.291

* $p < .05$, ** $p < .01$.

<표 7>과 같이 양육지식 초기치→양육스트레스 초기치→양육행동 초기치와 양육지식 초기치→양육스트레스 초기치→양육행동 변화율에 이르는 간접효과 계수는 각각 .100과 .009이며, 간접효과 계수에서 부트스트랩 실행에 의한 95% 신뢰도 하한값과 상한값의 범위에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p < .01$ 과 $p < .05$ 수준에서 양육스트레스 초기치의 매개 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높으면 양육스트레스를 낮춰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키며, 자녀 연령증가에 따른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감

소 폭을 적게 하는 정적인 부분 매개 효과를 미치게 된다. 그리고 양육지식 초기치→양육스트레스 변화율→양육행동 변화율에 이르는 간접효과 계수는 .084로 간접효과 계수에서 부트스트랩 실행에 의한 95% 신뢰도 하한값과 상한값의 범위에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p < .05$ 수준에서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의 매개 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높으면 자녀 연령증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지속적인 증가 폭을 줄여 주고,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감소 폭을 적게 하는 정적인 부분 매개 효과를 미치게 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발달계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중단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지식 측면을 살펴보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자녀 연령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지식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양육 초기에는 양육지식이 낮지만 양육기 동안 외부로부터 양육정보 및 지식의 획득과 양육 경험의 축적으로 인하여 양육지식이 점차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양미선, 김양은, 2012; 이정숙 등, 2016; 최효식 등, 2013)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첫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의 경우 양육 초기 경험이 부족하며, 양육지식을 인터넷이나 양육지식에 관한 도서 등의 외부 정보와 출산에 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습득하기 때문에 양육 초기 양육지식이 낮을 수 있음을 보고한 선행 연구(이정숙 등, 2016)와 일부 뜻을 같이한다.

본 연구를 통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양육 초기에는 양육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양육 시간 동안 다양한 경로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양육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양육에 대한 경험의 축적으로 양육지식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첫 자녀를 양육하는 영아 어머니들에게는 특히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양육지식과 정확한 양육정보의 습득이 필요하며, 양육지식을 제공해주고 올바른 양육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변별력을 키우는 부모교육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양육스트레스 측면을 살펴보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 연령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 초기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적은 어머니보다 자녀 연령증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더 적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6개월 시점보다 15개월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며, 15개월에서 36개월까지 이르는 영유아기 동안 양육스트레스가 절정에 이른다는 선행 연구(최효식 등, 2013; Crnic & Booth, 1991; Mulsow et al., 2002)와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일정한 선형패턴을 가지고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이정숙 등, 2016; 최효식 등, 2013)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만 2~4세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며,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어머니 집단에서 오히려 양육스트레스 증가 폭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 연구(황성온, 황지은, 2015)와 뜻을 같이한다. 하지만, 최옥주(2016)의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의 경우 자녀연령증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있으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더 큰 폭의 감소세를 보고하였고, 이정숙 등(2016)의 연구에서는 영아기 첫째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자녀연령증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지만,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더 큰 폭의 증가세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자녀연령증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적은 증가세를 보고한 본 연구결과와는 뜻을 달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처음 겪어보는 양육 경험과 부모 역할에 대한 어려움, 어린 자녀의 양육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와 심리적 부담감, 어머니 개인 생활에 대한 만족감 저하 등에서 느끼는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양육 초기 양육스트레스가 적은 어머니의 경우라도 양육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의 변화과정을 살피고 관리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양육행동 측면을 살펴보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은 자녀 연령증가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 초기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많을수록 양육 초기 사회적 양육행동이 적은 어머니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양육행동이 더 낮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 수준이 점차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황성온, 황지은, 2015)의 결과를 지지하며, 유아기 어머니의 경우 통제적 양육행동은 점차 증가하고, 온정적 양육행동은 점차 감소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김춘경, 조민규, 2017)와도 뜻을 같이한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회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자녀가 만 1~2세경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3세경에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며, 어머니의 초기 양육행동과 이후 변화율 간에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최인숙, 2015)와는 뜻을 달리한다. 또한, 유아기와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자녀 연령증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거나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성정혜, 김춘경, 2018; 이종욱 등, 2012)는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양육 초기에 비해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사회적 양육행동이 점차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이는 자녀연령을 달리 설정하여 연구하거나 유아기의 경우 연구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경우 자녀가 어린 영아기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일 수는 있지만, 양육지식 습득, 환경의 변화, 경제적 지원, 아버지 양육참여 등 여러 가지 변인들에 의해 감소세를 적게 하거나 안정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 스스로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늘리는 방안 즉, 부모교육 참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법, 보육관련기관 이용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양육지식이 자녀 양육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선행 연구(이정숙 등, 2016; 이희정, 2014; Mulsow et al., 2002)의 결과를 지지한다. 그리고, 양육지식이 장기적으로 양육스트레스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 선행 연구(이정숙 등, 2016)와 뜻을 같이한다. 반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의 증가는 양육스트레스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지식의 증가분은 양육스트레스의 증가분을 예측하지 못한다고 밝힌 선행 연구(이정숙 등, 2016; 최효식 등, 2013)의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양육 초기에는 양육지식이 부족할 수 있지만, 양육에 대한 경험이 쌓이게 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양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쌓이게 되면, 양육으로 인해 발생했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 초기 양육지식이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되기 전 양육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어머니 역할과 양육으로 인한 어려움을 적게 하여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어머니들이 매년 저출산 정책을 통해 출산 혜택이 늘어나고 있고, 임신 바우처 등을 통한 출산 및 육아 혜택을 받는 것과 같이, 출산 전후 양육에 대한 지식 제공과 더불어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양육지식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사회적 양육행동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발달과 관련된 양육지식과 양육행동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양미선, 김양은, 2012), 걸음마기 아동의 발달에 대한 지식의 경우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높여주는 부모 효능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음을 보고한 선행 연구(도현심 등, 2009)와 뜻을 같이한다. 하지만, 3~10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의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자녀에게 적절하고 바람직한 양육기술과 행동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민현숙, 문영경, 2013)와 양육지식이 높으면서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경우 사회적 양육행동이 높음을 보고한 선행 연구(서진영, 이주연, 2013)와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양육 초기 자녀발달에 관한 양육지식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자녀 수가 늘고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을 위해서는 자녀발달에 관한 양육지식만이 아닌 자녀 양육정보, 건강 및 영양, 안전, 부모 역할 등의 전반적인 양육지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사회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양육행동은 더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는 영아의 어머니는 온정성과 반응성이 낮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민현숙, 문

영경, 2013)와 뜻을 같이하며, 양육스트레스와 긍정적 양육행동의 부적 상관성을 보고한 선행 연구(김민형 등, 2015; 최효식, 연은모, 2014; 황성온, 황지온, 2015)와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형성한다는 선행 연구(Abidin, 1992; Ardeit & Eccles, 2001)의 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만 2~4세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양육행동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본 황성온과 황지온(2015)의 연구에서는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변화가 본 연구결과와 같이 사회적 양육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는 본 연구결과와는 달리 사회적 양육행동의 변화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녀의 영아기 동안 지속적인 양육스트레스 증가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는 이중 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반대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게 되면 사회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키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 부부공동 육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어린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 많이 전가되어 있으므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신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분담할 수 있도록 부부가 함께 양육에 참여하는 부부공동 육아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섯째, 양육지식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면, 양육 초기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높으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양육행동의 감소세를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 초기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높으면 양육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감소세를 둔화시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선행 연구(이희정, 2014; 정미라 등, 2014)들을 통하여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양육지식 습득을 통해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임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할수록 자녀에 대해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방법으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장선희, 2018)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뜻을 같이한다.

본 연구결과들을 통해 양육 초기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만0~1세 사이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의 양에 따라 양육스트레스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증가시키려는 방안으로 양육 초기 양육지식의 중요성을 알리고, 현대사회에 맞는 적절하고 편리한 양육지식습득에 대한 방법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과 함께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지식의 경우 ‘발달원리 영역’에 대한 문항으로,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부모 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영역에 대한 문항으로 연구되었으며, 양육행동의 경우 ‘사회적 양육유형’의 측정도구가 사용되었다.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각각의 변인에 관한 하위영역은 다양한 영역으로 살펴볼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각 변인에 대해 다른 영역 또는 전반적인 영역을 살펴볼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자녀연령에 따라 선행 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보이거나 연구결과들이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영유아기 자녀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영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에 대한 영유아기 전체 기간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어머니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며, 더욱 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한국아동패널의 조사는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여 시작된 국가적 차원의 중횡단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변인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차년도(2008)부터 3차년도(2010) 자료가 사용되어, 최근 시점과의 시대적, 사회경제적 차이점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최근 영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연구자료를 대상으로 재연구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양육 초기 어머니의 양육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육지식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 효과를 발견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습득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양육스트레스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양육행동 증진과 관련된 교육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현, 강희경 (1997). 논문편: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미정, 하지민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대상관계와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8(1), 283-303.
- 김민정, 도현심, 신나나, 최미경 (2013).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2), 101-119. <https://doi.org/10.5723/KJCS.2013.34.2.101>
- 김민형, 곽승철, 김기룡 (2015).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조절효과. **자폐성장애연구**, 15(2), 49-66.
- 김정미, 강정원, 박선영 (2011).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서울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3(2), 1-19.
- 김정미, 문승미, 김유정, 안선희 (2013).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어머니-교사 관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5), 79-98. <https://doi.org/10.5723/KJCS.2013.34.5.79>
- 김진경, 서주현, 배희분 (2016). 어머니의 출산 전·후 우울과 양육스트레스가 영아 발달에 미치

- 는 종단적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4), 591-611.
- 김춘경, 조민규 (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종단적 관계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06, 33-56.
- 남기원, 변유미 (2018).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자녀의 식습관 및 수면시간 간의 단기 종단적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22(1), 389-413. <https://doi.org/10.32349/ECERR.2018.2.22.1.389>
- 도현심, 이선희, 오유리, 김경미, 최규리, 강나현 (2009).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교육 요구도 및 지식정도. **아동학회지**, 30(3), 127-143.
- 민현숙, 문영경 (2013).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영아의 발달 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22(1), 43-56. <https://doi.org/10.5934/KJHE.2013.22.1.43>
- 배아란 (2021).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의 종단적 분석: 혼합연구방법 적용.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은희, 이소연 (2019).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 31(1), 26-45.
- 서영민 (2011). 첫 자녀 임신에서부터 조기 양육까지 ‘어머니역할’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둘째자녀 출산계획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진영, 이주연 (2013).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및 양육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6), 369-389.
- 성정혜, 김춘경 (2018). 어머니의 우울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육아정책연구**, 12(1), 99 - 123. <https://doi.org/10.5718/kcep.2018.12.1.99>
- 송연숙, 김영주 (2007). 1세-3세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 지식과 양육스트레스.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475-493.
- 송영주, 이미란, 천희영 (2014). 첫 자녀 출산 후 취업모와 전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자녀가치, 양육지식, 자녀미래기대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5(5), 15-35. <https://doi.org/10.5723/KJCS.2014.35.5.15>
-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미선, 김양은 (2012).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3), 229-247.
- 이경하, 서소정 (2009). 영아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적 특성 변인,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3), 87-102.
- 이송은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수행귀인 및 부모역할 인식과 그에 따른 양육행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슬기, 전귀연, 김수경 (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일-아버지의 역할 갈등과 양육스트레

- 스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5(1), 35-49.
- 이정숙, 방영숙, 배장오 (2016).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8(3), 27-41.
- 이종욱, 최한희, 박병기 (2012). 부모양육방식과 자녀발달특성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아동교육** 21(4), 275-296.
- 이주연 (2009). 기혼 취업 여성의 양육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정 (201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종단적 변화와 예측 변인.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3(2), 87-115.
- 장선희 (201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미라, 강수경, 김민정, 최혜정 (2014). 12개월 영아의 기질,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양육스트레스와 영아발달 간의 구조적 관계. **유아교육연구**, 34(3), 333-354. <https://doi.org/10.18023/kjece.2016.34.3.016>
- 정윤주, 채진영 (2010. 10). 어머니의 부모역할 적응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제1회 한국아동패널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 서울.
- 최옥주 (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유아 사회성 간의 종단연구. **유아교육연구**, 36(3), 127-149. <https://doi.org/10.18023/kjece.2016.36.3.006>
- 최인숙 (2015). 영아기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3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 연구. **아동학회지**, 36(6), 147-164. <https://doi.org/10.5723/KJCS2015.36.6.147>
- 최효식, 연은모, 권수진, 홍윤정 (2013).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 자녀가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분석. **육아정책연구**, 7(2), 21-45.
- 최효식, 연은모 (2014).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특성, 양육스트레스, 긍정적 양육태도 간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8(6), 5-30.
- 황성온, 황지은 (2015).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 간의 인과적 종단관계 분석. **아동학회지**, 36(4), 163-176. <https://doi.org/10.5723/KJCS.2015.36.4.163>
- 홍세희 (1999). 문항반응 이론과 요인분석을 이용한 척도개발 및 타당화. **한국임상심리학회 위크샵**, 1999(3), 1-89.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2104_12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Lawrence Erlbaum Associates. Hillsdale.
- Ardelt, M. & Eccles, J. S. (2001). Effects of mother's parental efficacy beliefs and promotive parenting strategies on inner-city youth. *Journal of Family Issues*, 22(8), 944-972. doi:10.1177/019251301022008001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t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https://doi.org/10.1080/016502596385820>
- Crnic, K. A., & Booth, C. L. (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4), 1042 - 1050. <https://doi.org/10.2307/353007>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https://doi.org/10.1177/0013164403251332>
- Huang, K. Y., Caughy, M. O., Genevro, J. L., & Miller, T. L. (2005). Maternal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and quality parenting among White, African-American and Hispanic mother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 Psychology, 26*(2), 149-170. <https://doi.org/10.1016/j.appdev.2004.12.001>
- MacPhee, D. (2002).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Survey of child care experiences & manual (2nd ed.)* Educational Testing Service.
- Mulsow, M., Caldera, Y. M., Pursley, M., Reifman, A., & Huston, A. C. (2002). Multilevel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stres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4), 944-956.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2.00944.x>
- Laakso, M. L., Poikkeus, A. M., Eklund, K., & Lyytinen, P. (1999). Social interactional behaviors and symbolic play competence as predictors of language development and their associations with maternal attention-directing strategie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2*(4), 541-556. [https://doi.org/10.1016/S0163-6383\(00\)00022-9](https://doi.org/10.1016/S0163-6383(00)00022-9)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https://doi.org/10.1037/1082-989X.7.4.422>

논문투고: 22.06.20.

수정원고접수: 22.09.25.

최종게재결정: 22.10.06.